

기쿠치 계곡에 서식하는 조류

기쿠치 계곡에는 연간 60 종 이상의 조류가 서식한다. 이러한 다양성이 가능한 이유는 풍요로운 삼림과 맑은 강의 생태계가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. 대부분의 새는 인간을 피해 보통 하이킹하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도망간다. 하지만 일반인도 이 지역의 들새를 볼 수 있으며, 특히 여름철에는 특징적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.

기쿠치가와 강 주변의 나무들에는 등과 날개가 회색, 배가 밤색, 머리가 흑백인 **곤줄박이**, 등이 황록색, 날개가 청회색, 머리가 검은색이고 뺨이 하얀 **박새**, 몸이 옅은 갈색과 회색이고 부리가 뭉툭한 **오목눈이**가 일년 내내 서식하고 있다. 강변에서는 등이 회색이고 배가 선명한 레몬색인 **노랑할미새**와 몸길이 40 센티미터 정도로서 머리에 땃기깃이 나 있는 흑백의 **뿔호반새**도 자주 볼 수 있다. 계곡 상류에는 펼친 날개 길이가 최대 175 센티미터에 이르는, 당당한 흑갈색의 맹금류인 **뿔매**가 서식하고 있다. 이 최상위 포식자의 존재는 식물 연쇄가 발달한 건강한 생태계를 나타낸다.

봄부터 여름에 걸쳐서는 철새가 계곡에 나타나는데, 동남아시아에서 건너오는 색깔이 선명한 **큰유리새**의 울음소리가 계곡 전체에 울려 퍼진다. 이 새는 적어도 에도 시대(1603~1867 년)부터 휘파람새, 붉은가슴울새와 더불어 ‘아름답게 우는 일본의 3 대 새’로 여겼으며, 유려하고 아름다운 가락이 있는 울음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기르면서 친숙해졌다고 한다. 기쿠치 계곡에 찾아오는, 몸집이 더 크고 아름답게 우는 새는 **두견**이로서, ‘쿄쿄 쿄쿄쿄’ 하고 4 구로 구성된 짧은 소리로 울어 천 년도 더 전부터 귀족들이 읊은 일본 고유의 시 와카에도 등장하고 있다.

고요함이 계곡을 감싸는 겨울에는 등이 갈색이고 배가 희며, 부리가 회색과 노란색인 **흰배지빠귀**가 먹이를 찾아 삼림 지표면을 돌아다니며 낙엽을 쪼는 모습을 볼 수 있다. 또한 잎이 진 나무들 사이에서 **코퍼긴꼬리뿔**이 드문드문 보일 때도 있다. 광택이 있는 갈색 깃과 긴 꼬리가 우아한 일본 고유의 새다. 수컷은 노란색 부리와 붉은 얼굴이 특징이고, 암컷은 몸집이 작고 몸 전체가 회갈색이다.